

# 어린이책 들춰보기

## 꼬마도깨비 또치의 하늘여행

이슬기 지음 / 황명희 그림  
지경사 / A5신 / 220면 / 3000원

「꼬마도깨비 또치의 세상구경」 「꼬마도깨비 또치의 지옥여행」에 아은 꼬마도깨비 또치의 흥미진진한 세번째 여행기. 이번에는 하나하나마다 내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별님나라를 비롯해 선녀폭포의 무지개 다리,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학들이 사는 '하늘나라'를 돌아다녔다. 또치와 함께 간 개구쟁이 친구 원준이가 타잔흉내를 내다가 달나라 계수나무를 찢어놓는가 하면 천도복숭아를 몰래 따먹다가 돼지로 변해버리기도 하는 등 너무 짓궂게 장난을 치는 바람에 아쉽게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 겨자씨의 꿈

조성자 지음 / 송희정 그림  
현암사 / A5신 / 220면 / 2800원

점차 잊혀져가는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표제작을 비롯해 생활주변의 작은 사물들을 의인화해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동전의 여행」 등 다양한 소재의 동화 33편을 '꿈들의 행진' '숲속 마을' '기도하는 마음' '작은 사랑의 이야기'의 4부로 나누어 엮었다. 주인공 '송이'가 성장해가며 엄마의 사랑을 확인해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린 「울엄마」 연작과 같이 간결하고 산뜻한 문장이 특징. 작가는 85년 「아동문예」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지난해 대한민국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 옴팡집 투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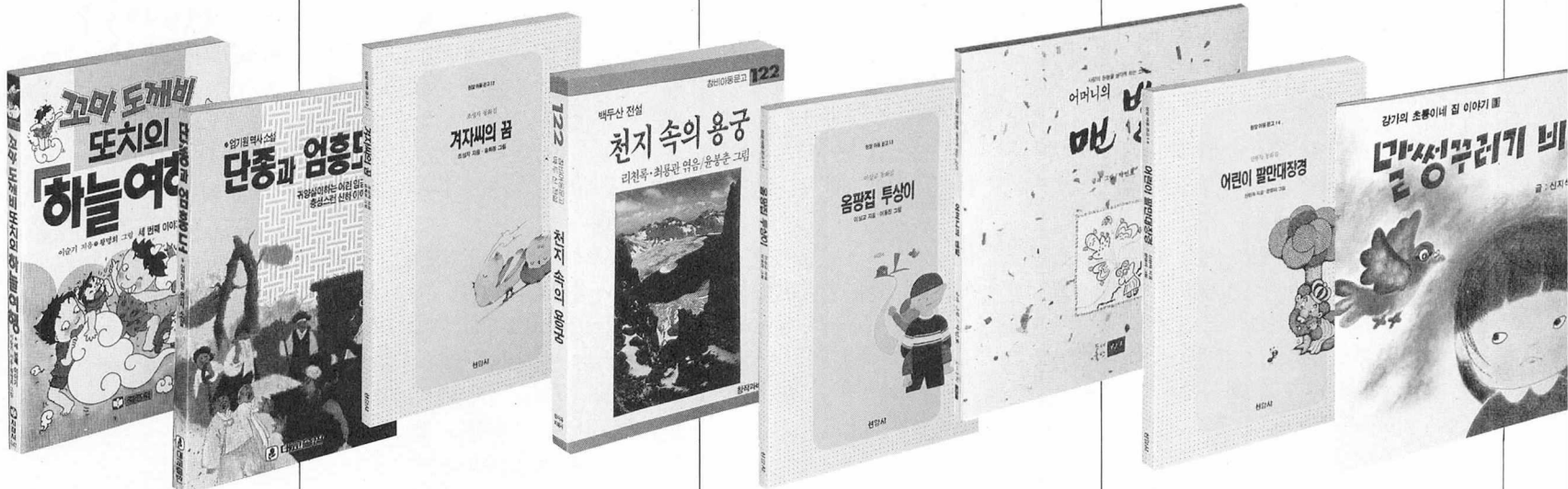
이상교 지음 / 이동진 그림  
현암사 / A5신 / 224면 / 2800원

작가가 어린시절을 보낸 경기도 강화군 초지리에서의 추억을 토대로 자연과 함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순박한 동심의 세계를 그렸다. 「언덕배기에 옴푹 들어간 옴팡집에 살면서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투상의 모습」을 그린 표제작을 비롯해서 「산」 「승규네 닭」 「산안개」 「땅꾼」 「봉숭아 손톱」 「할아버지와 염소」 등 21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전편을 통해 선명한 전원풍경과 체험적 이야기가 실감있게 묘사돼 있다.

## 어린이 팔만대장경

신현득 지음 / 문영미 그림  
현암사 / A5신 / 232면 / 2800원

불교설화 연구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가 팔만대장경 이야기 중 우화를 포함한 40편을 모았다. 「이슬우화」와 「아라비안나이트」 탄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자아타카'는 동화 547편으로 엮어진 '본생경'으로 세계 최초의 동화집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여기서 뽑아낸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편편의 이야기마다 그 주제를 요약해놓은 '생각해 보세요'란을 마련했다.



## 단종과 엄홍도

엄기원 지음  
대교출판 / A5신 / 200면 / 2800원

동화와 동화작가로 많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의 역사소설로 비운의 단종과 그가 귀양살이중에 만난 충신 엄홍도와의 따뜻한 정을 그렸다. 열두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지 3년만에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기고 귀양길에 오른 단종은 귀양지인 강원도의 외진 고을 청령오에서 '호장' 직을 맡고 있던 엄홍도를 만나게 된다. 시골노인에 불과한 엄홍도는 충심으로 단종을 보필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은 심성을 잃지 않는 엄홍도를 통해 참된 용기란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됨을 일깨운다.

## 천지 속의 용궁

리천록 · 최룡관 엮음 / 윤봉춘 그림  
창작과비평사 / A5신 / 296면 / 3000원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백두산에 얽힌 전설들을 모은 책으로, 중국 연변인민출판사가 펴낸 「백두산 전설」(1989)을 참고삼았다. 진취적이고 정의로운 소년들의 이야기와 자연풍물과 동식물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 등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35편의 이야기를 3부로 나누어 엮었다. 부록으로 각 이야기의 구술자와 수집지점, 수집일시를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본문에서는 연변교포들의 사투리를 그대로 살리고 어려운 한자어는 괄호표리를 달아 놓아 단순한 이야기책을 넘어 풍부한 알거리를 제공한다.

## 어머니의 맨발

박민호 지음  
도서출판 씨 / B5변형 / 96면 / 2800원

「사랑의 원형을 생각해 하는 소리」라는 부제를 단 그림동화로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5편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사람들은 벌써 꿈속으로 뛰어들어 갔고, 텅 빈 거리에 어린날의 이야기들이 차분히 내려앉고 있」는 한겨울밤에 동그마니 턱을 괴고 앉아 어머니를 추억하는 표제작을 비롯해 「수줍은 아이 웃음이 앞산 허리에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여름」 「일들은 가을에 쏟아지는 낙엽처럼」 「돌아오지 않는 날들은 언제나 강물을 따라 흐릅니다」 등의 아름다운 그림동화가 실려 있다.

## 말썰꾸러기 비둘기

신지식 지음 / 김옥순 그림  
성바오로출판사 / B6변형 / 28면 / 2500원

사물을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편견없이 순수한 눈과 어른들의 사려깊은 입장이 팽팽한 대립을 거쳐 아름답게 화해해 가는 과정을 어린 초롱이의 눈을 통해 들려주는 국민학교 저학년용 동화. 초롱이와 그의 동생 아가는 마당 한편에 무리지고 노는 비둘기들을 몹시 좋아하지만 초롱이의 엄마는 비둘기들이 오기만 하면 쫓아내기에 바쁘다. 이유를 알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초롱이는 비둘기들이 아무데나 똥을 싸고 지저분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좋아하는 비둘기와 사랑하는 엄마 모두를 화해시키기 위해 묘안을 짜낸다.

## 뿔난 아이

이가을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A5 / 190면 / 2700원

어린이들의 재미있는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어린이다운 순수함을 오래도록 간직케 하는 동물과의 사랑과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14편의 단편동화에 담았다.

장난감 팬더곰이 살아나는 것이 소원인 국민학교 4학년 '진주'와 천사를 만나보는 것이 소원인 동생 '보람이'가 식구들이 없는 사이 놀랍게도 그 소원을 이룬다는 「아기 천사와 팬더곰」 등 주로 국민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올바른 심성과 선한 인간상"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누나와 징검다리

장문식 지음 / 백우근 그림

창작과비평사 / A5신 / 222면 / 3000원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동화집 「신기료 할아버지」 장편동화 「가슴마다 뜨는 별」 「출렁이는 물그림자」 등을 펴냈고 한국아동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작가가 83년 이후 발표했던 동화와 소년소설들을 모았다.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라나는 두 남매 '개동이'와 '옥순이'의 애뜻한 정을 그린 표제작을 비롯한 18편의 이야기를 2부로 나누어 엮었는데 구수한 사투리와 토속적인 이야기 배경이 어우러져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 생각하는 어린이가 참 좋다

이영준 지음

파랑새 / A5신 / 각 190면 / 각 2800원

자기 자신만 이익이나 명예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 인류의 복된 삶을 위해 일생을 살다간 여러 위인들이 이야기를 국내편과 외국편으로 나눠 구성했다.

국내 위인편에는 화랑도 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나라를 구한 관창을 비롯해 김정호, 김구, 우장춘, 방정환 등 16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 외국 위인편에는 맹인이었지만 온 세상에 빛을 밝힌 헬렌켈러 외 링컨, 간디, 슈바이처, 처칠 등 20인의 어린시절부터 어른 이후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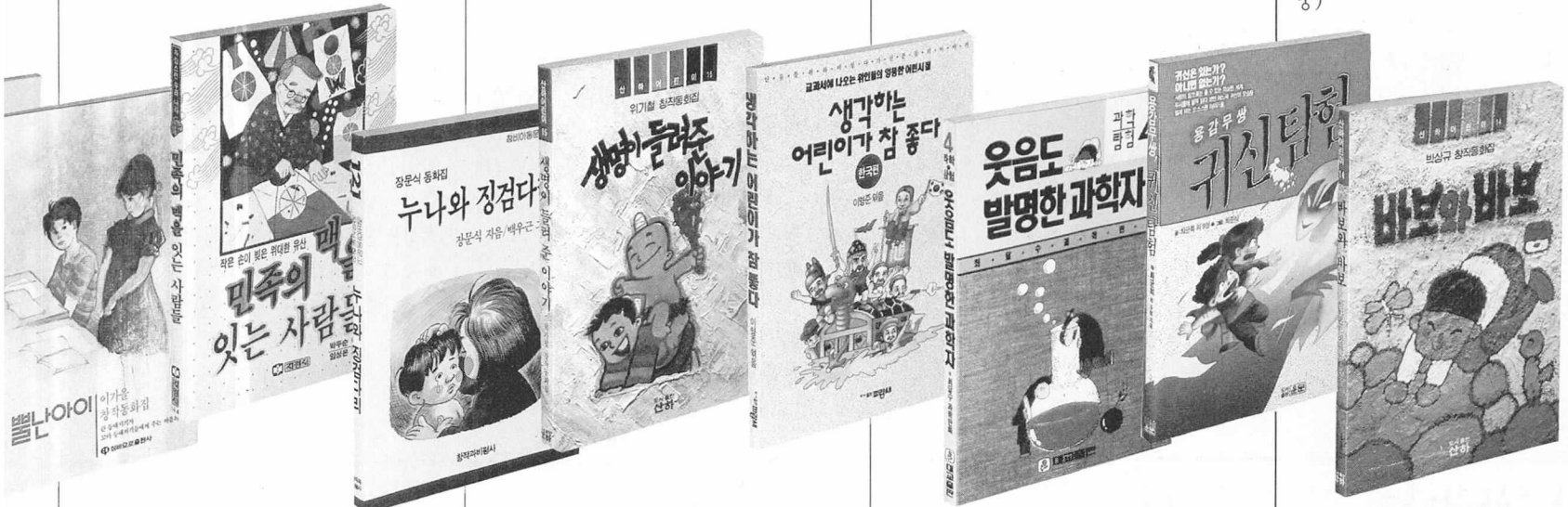
## 용감무쌍 귀신탐험

최근희 외 지음 / 최준식 그림

윤문 / A5신 / 192면 / 2500원

어린이들에게 공포스러우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의 대상인 귀신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9편을 모았다.

국민학교 선생님인 '민선생'은 졸업식을 앞두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영진이'를 걱정하면서 2년전 일을 회상한다.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영진이를 시골에서 데려와 자신의 학교에 다니게 하면서 돌보던 민선생은 그후 잦은 영진이의 가출을 추적하던 중 원래 점장이었던 영진이 어머니의 혼령이 나타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어느날 영진이가 시체로 발견된다. (「민선생의 악몽」 중)



## 민족의 맥을 잇는 사람들

박두순 엮음

지경사 / A5신 / 218면 / 3000원

활 부채 탈 목기 등 지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조상전래의 생활문화유산을 후대에 이어주기 위해 눈물겨운 장인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용기장이 할아버지' '손끝의 눈으로 엮는 대바구니' '이어지는 징소리' '내고향 특산물, 돌그릇이 최고' 등 한평생 또는 몇대째를 오로지 한 길만을 추구하며 외롭지만 끈질기게 걸어온 이들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우리문화의 뜨거운 핏줄을 이어가고 우리 민족의 얼을 가꾸는 소명을 지닌 그들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보람된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한다.

##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

위기철 지음 / 이희재 그림

산하 / A5신 / 240면 / 3000원

컴퓨터오락 강시영화 권총장난감 등 어린이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같은 놀이에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하고, 죽음도 대수롭지 않게 만드는 무서운 독성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즐기는 아이들을 알게 모르게 범죄에 길들게 하고 실제로 사회문제까지 비화되곤 한다.

'사랑의 눈물' '돈으로 생명을 사려 한 영감' '사과열매는 누가 가져야 옳은가' 등 모두 10편의 동화에서 작가는 어린이를 죽이는 이같은 장난감이나 놀이로부터 이땅 모든 어린이를 구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한다.

## 웃음도 발명한 과학자

최달수 글 · 그림

대교출판 / A5신 / 222면 / 3000원

어린이 월간지 「나이트」와 「과학 동아」에 연재되어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과학만화책을 책으로 묶었다.

과학자들이 발명·발견을 하게된 동거나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들을 만화형식으로 구성하여 어렵지 않게 과학지식을 익히도록 했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사소하다고 여기고 그냥 지나칠 만한 것에도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매달려 끈질기게 관찰하고 실험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어낸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 바보와 바보

박상규 지음 / 이철희 그림

산하 / A5신 / 224면 / 3000원

참교육을 실천하는 한 여선생의 삶을 아이들의 눈을 통해 그려보았던 동화 「참나무 선생님」을 펴내 교육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했던 충북 대미국민학교 교사인 작가의 최근의 창작동화집.

여러 친구들에게 바보라 놀림을 당하면서도 밝은 마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소중한 존재로 남게 된 한 어린이의 이야기 '착한 바보'를 비롯해 '안개간, 골짜기' '맹랑한 촌놈들' 등 모두 8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지니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다.